

광주과학관에서 몽골 대초원 동물들 만나 보자

전시·공연 등 연말 행사 다채

내년 2월까지 ‘몽골 동물 특별전’

내일 ‘호남 노벨상 배출방안’ 포럼

16일 ‘메리 사이언스마스’ 콘서트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 연말을 맞아 전시회와 포럼,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15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두 달간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몽골의 독특한 생태계와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상을 보여주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몽골의 독특한 식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3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자연을 만나다’ 존에서는 몽골에 서식하는 눈표범, 회색늑대 야생양 등의 다양한 희귀종 표본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희귀종 표본뿐만 아니라 순록, 곰, 야생염소 등의 동물 표본들도 함께 전시된다. 또 전시관 내 위치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다’존에서는 독수리의 비행 원리와 산양의 발굽과 뿔 등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사례에 대한 전시물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과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생체모방기술인 ‘청색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몽골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다’존에서는 몽골의 전통의상과 악기, 놀이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몽골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도 함께 진행되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몽골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과학관은 또 이와 관련 몽골의 자연사와 생태, 청색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몽골리안 데이(Mongolian Day)를 개최해 몽골의 예술과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매일 6회 전시품과 과학 원리를 설명해주는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람료 3000원.

오는 15일 오후 4시 국립광주과학관 1층 상상을에서는 제5회 필사이언스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높아져 가는 노벨 과학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호남, 노벨을 만나다!’를 주제로 꾸며진다.

올해로 117회를 맞은 노벨상, 특히 노벨 과학상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을 여는 등 연말을 맞아 전시회와 포럼,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은 개인의 과학적 성과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과학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성과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벨 과학상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교육·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본다.

이번 필사이언스 포럼은 포항공과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경순 교수가 ‘노벨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을 진단해본다. 뒤이어 과학산업 전문 언론 대덕넷의 이석봉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홍노 GIST 연구원 원장, 김근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박정환 미래산업정책관, 조숙경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전시본부장(관장직무대행)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필사이언스 포럼 종료 후에는 ‘2017년 국립광주

과학관 후원의 밤’이 진행된다. 후원의 밤에서는 올 한 해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의 활동을 결산과 더불어 다양한 공연과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필사이언스 포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일 오후 2시부터는 크리스마스 필사이언스 콘서트 ‘Merry! Science-Mas’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행사로, 전 삼성전자 상무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강사로 나선다. ‘희망의 사다리, 그리고 꿈 너머 꿈’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참석자들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연 이후에는 크로스오버 팝페라 그룹인 ‘자브로’와 남성 듀오 ‘B.o.K.’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과 깜짝 선물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960-617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광주과학관 12월 전시·행사

몽골 대초원의 동물 특별전
12월15일 ~ 2018년 2월28일

-독수리·고비배어 등 몽골 희귀동물 전시
-몽골의 광물 및 ICT디지털암각화 체험
-몽골 전통문화·놀이 체험

제5회 필사이언스 포럼
15일 오후 4시

-임경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노벨상으로 가는 길’ 강연

크리스마스 필사이언스 콘서트
16일 오후 2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강연
-페이스 페인팅·공연



“아버님 댁에 ‘디지털 말뚝’ 놓아 드려야겠어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독성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0년 구축된다. 혼자 사는 고령층의 ‘말뚝’이 될 디지털 기기도 개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

업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의 올해 과제로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危害)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이 선정됐다.

화학제품의 성분 및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하고,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까지 과기부 신규 개발 과제 화학제품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도

세종대 연구진이 이 연구를 주관하며 2020년까지 사업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장난감 환경호르몬, 가습기 살균제, 유해 생리대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와 유해성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구축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디에스티로봇 연구진은 고령층과 대화를 나누

고, 응급상황이 생길 때 가족에게 연락해주는 디지털 기기의 개발을 맡았다.

이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컴패니언 개발’ 과제에는 2020년까지 40억원을 준다.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데도 2020년까지 12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건강, 환경, 재난 등 국민생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려는 지원체계를 새로 정립하는 한편 기존 성과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LTE 가장 빠른 국가

미국 뉴욕보다 4배 빨라

한국의 LTE 속도가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올해 한국을 제외한 7개국 8개 도시의 광대역 LTE(225Mbps급 이상) 및 음성통화(3G) 품질을 조사해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서비스 품질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도시 중 다운로드 속도는 토론토가 69.56Mbps로 가장 빨랐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43.18Mbps, 도쿄 42.32Mbps 순이었다.

다운로드가 가장 느린 도시는 뉴욕으로 30.05Mbps에 불과했다.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조사에서 120.09Mbps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약 1.7배, 뉴욕보다 무려 4배 빠른 수치다.

평균 업로드 속도는 41.83Mbps로 토론토(26.87Mbps)의 약 1.6배, 뉴욕(13.78Mbps)의 3배였다.

연합회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품질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와 동일하게 행정구역, 테마지역(유동인구 밀집지역·지하철·건물 안), 취락지역(고속도로, 기차)을 구분해 측정했다.

조사 결과 주요 도시의 통신 범위(커버리지)와 속도는 지난해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뉴욕, 런던, 파리의 지하철 터널 구간은 정상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품질이 미흡해 조사가 어려웠다고 KTOA는 전했다.

품질 평가는 대상국의 전용 회선과 후불 요금제를 통해 진행됐고, 측정 단말은 현지에서 산 갤럭시S7으로 통일했다. KTOA는 품질조사 결과를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0월 스마트폰 승자는 아이폰8

애플 아이폰8이 10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조사됐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월간 시장 보고서인 마켓 펄스에 따르면 아이폰8과 8플러스는 10월 전세계 점유율이 각 4.6%, 4.0%로 베스트셀러 순위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아이폰8은 아이폰X에 대한 수요 탓에 전작인 아이폰7보다는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아이폰X의 판매 실적 이 반영되는 11월에는 애플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이폰8은 1차 출시국에서 9월 22일, 아이폰X는 11월 3일 출시됐다.

삼성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플러스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플러스는 아이폰8 시리즈에 이어 2.4%, 1.5%의 점유율로 나란히 3, 4위에 올랐다. 삼성은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갤럭시A, J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의 호실적에 힘입어 전체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했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설명했다. 애플의 점유율은 14%였다.

/연합뉴스

투자 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